

# “일제 피해 할머니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2009년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창설...10여년 동행 “고령의 피해자들 위해 신속한 사과·배상 이뤄져야”

“할머니들 속 처진 어깨 외면할 수 없었죠,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0여년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알리며 함께하고 있는 시민활동가가 있다. 주인공은 이국언 (53)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다.

200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으로 시작한 단체는 올해 3월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자금을 통제한 것을 말한다. 일제는 1939년 7월8일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10월1일부터 조선의 어린 노동력을 동원했다.

본래 기자로 활동했던 이 대표는 2003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 유족회 취재를 통해 故이금주 회장을 만나며 일제 피해자 사건을 처음 접했다. 당시 이 대표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시

피해자들은 가슴에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한국사에서 조명되지 못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해방 이후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위안부로 낙인 찍혀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해서도 남편으로부터 모욕, 구타, 이혼까지 겪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국에서도 외면 받는 현실에 가슴이 저러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07년 나고야 고등재판소 2심판결 상고 재판 당시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에 동행 취재를 다녀온 기억을 떠올리며 ‘참담’ 그 자체였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법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기자가 있었고 저 가운데 분명 우리 특파원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보니 일부 일본 언론만이 단선으로 보도했고 우리 언론은 관심이



없었다”며 허망했던 순간을 묘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이어 가는데는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의 역할이 컸다. 일본인으로 이뤄진 나고야소송지원회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재판을 위해 일본을 찾았을 때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부담했다. 또 일본의 일부 현지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무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 대표는 “냉랭하기 그지없는 일본 사회에서 한국 피해자들을 위한 이들을 보며 민주인권과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시민이라는 게 부끄러웠다. 국민들은 재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오로지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한국의 현실이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할머니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2007년에는 피해자 인터뷰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 2008년에는 기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시민 활동에 나섰다. 이후에는 ‘14살, 나고야로 끌려간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이는 광주인권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이 대표와 시민모임의 노력 덕분에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1일 광주지법 승소 판결이 나면서 근로정신대 미쓰비시 상대 소송도 진행됐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9년 4월 광주시청 1층 민원실 한켠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상 소송인단도 모집해 당시 530여명의 소송인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또 정부의 무관심 속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로를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시민모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광주·전남 그리고 전국 각지 국민들의 작고 소중한 응원 덕분이다.

이 대표는 “어느덧 고령이 된 할머니들을 보면 신속히 사과와 배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인기자



### 순천 부일환경, 마스크 500박스 전달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부일환경(주) 이경우 대표가 농촌지역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

부일환경은 최근 순천시청 읍·면 이장단 470여명에게 마스크 100매 씩 포장된 500여 박스를 전달했다.

이러 대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읍·면 사무소 직원들과 순천시청 콜센터 직원들에게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물품 기부는 도심지역에 비해 의료 취약 지역인 농촌지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이자 농촌지역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것이다.

부일환경은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둥이 가정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순천시 장애인단체, 순천시인재육성성학각군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곳과 함께 마스크 총 1만장 (500만원 상당)을 순천시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경우 부일환경 대표는 “읍·면지역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남정민기자



### 송기주 제81대 화순경찰서장 취임

제81대 송기주 화순경찰서장 취임식이 16일 화순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송 서장은 취임사에서 “신변보호 대응사건이나 시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 현장 대응 능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주민에게 안심을 주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을 추구하는 경찰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서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바람나는 조직풍토를 구현해야 한다”며 “현장 경찰의 중요성을 인식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서장은 고충 출생으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전남경찰청 형사과장을 역임했다. /화순=이병철기자



### 서부소방, ‘청렴활동 우수 소방관서’ 선정

광주 서부소방서는 16일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청렴활동 우수부서 선정에서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렴활동 우수부서 선정은 지난 6월부터 2개월마다 ‘청렴해피콜 만족도 조사’ 및 ‘청렴알림 문자 발송’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서부소방서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관리 감독과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변경), 소방 완비 증명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서부소방서 외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고 민원 건수가 많은 5개 부서가 추가로 선정됐다.

한편, 청렴해피콜 만족도 조사와 청렴알림 문자 발송은 업무관련 민원인과의 직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청렴문자를 발송해 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상시소통과 사후관리를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안재영기자

### 인사

통계청 <과장급>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백지선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명노섭



## 광양제철소, 광복 77주년 태극기 풍선나눔

광양제철소 하늬바람풍선아트 재능봉사단이 최근 광복절을 맞아 금호동 복지센터에서 풍선 나눔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지역민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늬바람풍선아트 봉사단과 광양시가족센터가 함께 마련했다.

하늬바람풍선아트 봉사단은 복지센터를 지나는 시민들과 광양제철소 직원들에게 헬륨풍선 300개를 나눠주고 다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풍선에는 태극기 문양과 ‘대한독립만세’

라는 문구를 새겨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다.

풍선을 나눠 받은 사람들은 별도 설치한 폴라로이드 포토존에서 태극기 풍선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광복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색다르게 되새길 수 있었다.

광양제철소 한 직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2005년부터 시작한 ‘희망하우스’ 사업을 통해 6·25 참전 유공자 자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광양=양홍렬기자



## 목포 이로동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밀반찬 전달

목포시 이로동새마을부녀회가 최근 관내 홀로사는 취약계층 13가구에 정성을 담은 밀반찬을 전달했다.

부녀회는 지난 6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2022 이로동 밀반찬 사업’을 펼치며 직접 식재료를 다듬어 만든 밀반찬을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다.

이소영 이로동새마을부녀회장은 “혼자라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한 이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여수 삼일동 주민자치위, 1일 파티쉐 빵 나눔 봉사

여수시 삼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대한적십자 여수봉사관에서 ‘1일 파티쉐 빵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1일 파티쉐 봉사는 위원들이 직접 만든 카스테라를 삼일동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장길수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들은 밀가루 반죽부터 포장까지 1천200개의 빵을 직접 만들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관내 20개 경로당에 빵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장길수 삼일동 주민자치위원장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했다. 이준호 삼일동장은 “다 함께 잘사는 삼일동 만들기에 늘 앞장서주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동에서도 위원회의 여러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 탑솔라, 인니 정부·기업인 초청 ‘태양광 사업설명회’

국내 신재생에너지 대표기업인 탑솔라그룹(회장 오형석)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을 초청, 태양광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탑솔라 그룹 광주 본사와 신안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사업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특별자치주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로얄푸리 다우살렘 기업인, 김명일 (㈜더존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방단원이 참여했다.

행사는 회사소개와 공장 견학, 탑솔라가 시공중인 국내 최대 300MW 태양광발전소인 신안 안좌 스

마트팜 앤 솔라시티 현장 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탑솔라 그룹은 2002년 설립 이후 태양광발전 누적 시공용량 920MW, 발전소 O&M 800개소·500MW를 달성하고 2021년에는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 전국 6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탑솔라 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과 높은 제작 기술로 해외 등 더 넓은 시장에 신재생에너지를 선보여 국위 선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 무안농협, 농협 창립 61주년 ‘총화상’ 수상

무안농협은 16일 “최근 농협 본관에서 열린 농협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총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협 총화상은 전국 농·축협,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상호 간 인화단결과 복무기강 확립으로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무소에 수여하는 농협 최고 영예의 상이다. 올해 총화상 수상 사무소는 중앙회 등 10개소와 농·축협 16개소다.

무안농협은 본지점 창구 환경개선 공사와 영농자재판매장 진열 현대화를 통한 조합원 편의 증대를 위한 노력, 양과 등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농정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인정받아 대

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농업 등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의 대출 등 신규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출금 2천억원 달성·예수금 3천억원 달성·조합원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농협 참여와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 조합원 실의 지원을 위한 경영 기반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 최고의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했다”며 “농업인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무안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삼호기자

## 담양 봉산면 지사협, 취약계층 삼계탕 나눔

담양군 봉산면은 16일 “최근 말복을 맞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최은정 복지팀장 등이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을 위해 삼계탕, 파김치, 열무김치를 손수 장만해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봉산면 지사협은 매달 릴레이 반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밀반찬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폭염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애써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봉산면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